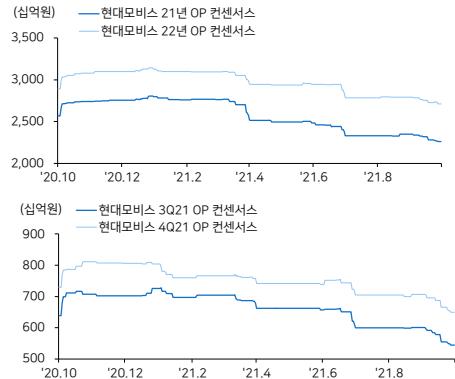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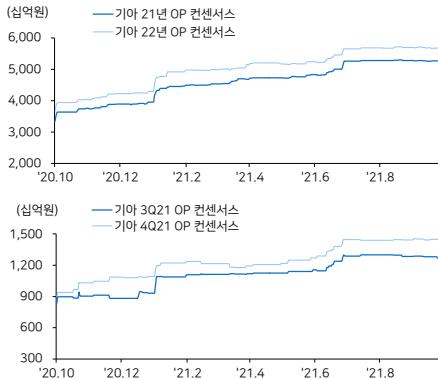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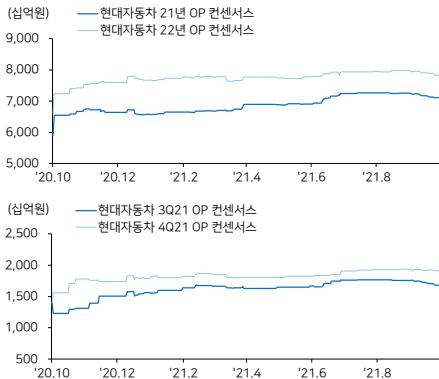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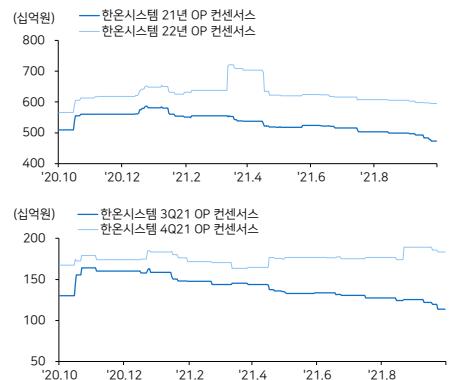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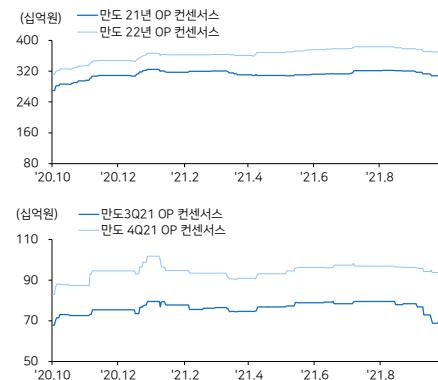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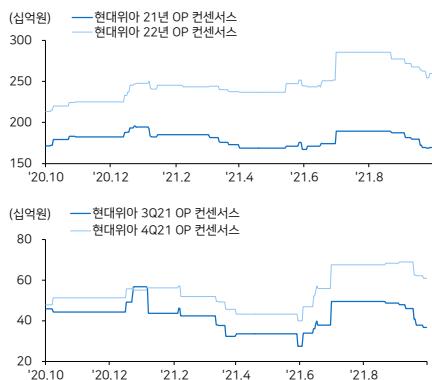


##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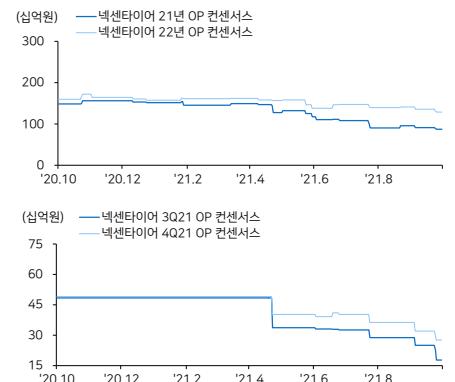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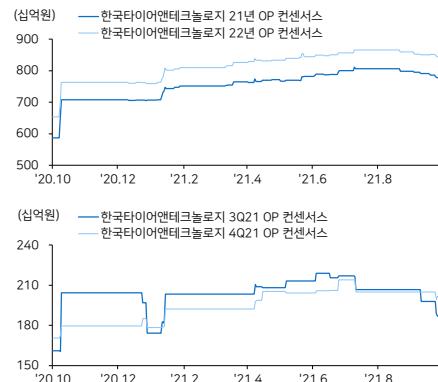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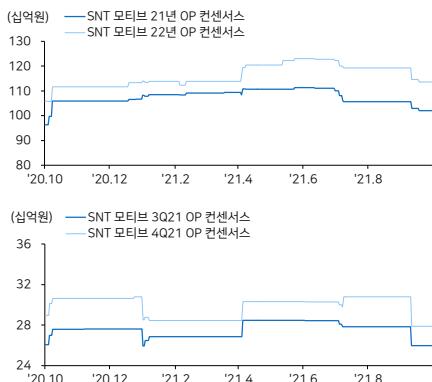
###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 현대차, 승부수 던졌다…'GV70 전기차' 미국서 생산 (한국경제)

현대자동차가 내년 출시 예상되는 GV70 전기차(EV) 모델을 미국 앤디애나 공장에서 생산할 계획, GV70 EV의 미국 현지 생산은 전기차 전환 속도를 높임과 동시에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시장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됨.  
<https://bit.ly/3EMOT5r>

#### 현대차, '솔라리스 경찰차' 러시아 누빈다…순찰차 2497대 공급 (THE GURU)

현대차는 최근 러시아 교통 당국에 솔라리스를 기반으로 경찰 순찰차 2,497대를 납품함. 현대위아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유럽 1호 생산거점을 마련하며 솔라리스 등 현지 차량 생산 안정성도 확보.  
<https://bit.ly/2ZLq7mW>

#### 세계 전기차·배터리·광산업계, 리튬 확보 '합동연형' 차별 (연합뉴스)

중국 CATL과 중국의 대형 리튬 생산업체인 긴펑(金峰)리튬은 캐나다 리튬업체인 '밀레니얼 리튬' 인수전을 치르는 중, 세계 리튬 소비량이 30년까지 5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기차·배터리 산업과 리튬 생산업체 사이의 합동연형이 진행.  
<https://bit.ly/3k50Mvp>

#### 바이두, 전기차·교체식 배터리 사업 진출 (ZDNet Korea)

바이두의 길리 합작사인 자비디(JD)자동차는 상하이에 신규 회사를 설립하고 전기차용 교체식 배터리 사업에 진출. 친환경차 및 부품 기술 서비스 및 개발, 친환경차 교체식 배터리 설비 판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비 운영 사업을 영위할 계획.  
<https://bit.ly/2ZOUV6>

#### 현대차·기아, 10월 美판매 선방…제네시스 사상최대 실적 (파이낸셜뉴스)

제네시스는 반도체 수급난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10월 미국서 5,300대의 판매고를 올림. 이는 전년 대비 402.8% 급증한 수치이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 SUV 중심의 성장세가 돋보임.  
<https://bit.ly/3mH4ggQ>

#### 현대차그룹 11% '부가티-리막, 공식 출범…'정의선 선구안 탁월" (THE GURU)

리막은 3일(현지시간) 포르쉐, 부가티와 합작해 '부가티-리막' 설립을 본격화한다고 밝힘. 부가티-리막은 리막의 전기차 기술을 활용해 전기하이퍼카를 생산할 계획. 현대차그룹은 과거 전략적 투자로 리막 지분 13%를 보유.  
<https://bit.ly/31uVs5v>

#### 테슬라도 쓴다는 LFP 배터리…中, 생산량 무섭게 놀랐다 (마니투데이)

지난해 중국 시장에서 불과 18% 비중을 차지했던 LFP 배터리는 올해 3분기까지 31%로 상승. 3분기까지 중국 내 전기차에 탑재된 LFP 배터리는 전년 동기 대비 약 6.1배 늘어남. 생산량 역시 yoy +3.5배 증가한 13.5GWh를 기록.  
<https://bit.ly/3q196QM>

#### VW expands its electric vehicle offerings with the ID.5 electric SUV (electrek)

폴스바겐이 ID 전기차 시리즈의 새로운 버전 ID.5를 공개. ID.5 Pro 기준 77kWh 배터리팩으로 320마일 주행 가능. ID.4의 쿠페 버전으로 예상되며, '22년 유럽 시장에 먼저 출시될 예정.  
<https://bit.ly/3nUeBy2>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협력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